

“코미디 연기 어렵지만, 관객 웃음 터지면 그 자체로 보람”



일명 더티 섹시의 표본을 보여준 '내 아내의 모든 것' (2012)부터 허술한 마약팀 형사로 분한 '극한직업' (2019), B급 감성을 제대로 녹인 '달강장' (2024)까지. 다양한 코미디 영화로 필모그래피를 채운 류승룡은 영화계에서 가장 코믹 연기를 잘하는 배우 중 하나로 꼽힌다. 악역 같은 얼굴을 하고서 무심하게 내뱉는 말투, 상대 배우와 주고받는 '티키타카',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애드리브 등 웃음에 필요한 거의 모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김장욱 감독의 신작 '아마존 활명수'에서도 그의 장기가 발휘된다. 특유의 말맛을 살린 대사와 몸을 사리지 않는 슬랩스틱이 어우러졌다.

"코미디 연기, 너무 어렵죠. 솔직히 저도 고 통스러워요. 하지만 월드컵을 한 방울 한 방울 축출하는 것처럼 미세한 공정을 거친 끝에 관객이 웃음이 터지면 그게 참 보람 있어요."

2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류승룡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냈고, 대 장면 장인정신으로 임했다"고 촬영 당시를 돌아봤다.

류승룡은 '아마존 활명수'에서 아마존의 전사들을 훈련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 전 국가대표 양궁 선수이자 물산 회사의 만년 과장 진봉을 연기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과 어떻게든 소통하려 분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아내 수현(염혜란 분) 때문에 별별 떠는 모습이 애잔하면서도 웃음을 준다.

"올음의 종류가 다르듯이 웃음 역시 종류도, 표현 방법도 다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치

미를 뚝 때는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전 안 웃는데 관객만 웃기는 거죠. 배우는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이 연기가 웃길지) 판단하려고도 하고요."

하지만 류승룡은 이 작품에서 코믹 연기에만 치중한 것은 아니다. 후반부 영화의 분위기가 휴먼 드라마로 바뀌면서 진지하고 따뜻한 면모도 보인다.

류승룡은 "처음엔 진봉과 전사들이 겪는 좌충우돌과 해프닝을 보여줬다면 나중에는 진봉의 원래 모습이 나온다"며 "캐릭터가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연기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류승룡이 주연한 영화 '극한직업' (2019)의 배세영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다. '극한직업'이 1천600만여명을 동원한 흥행작인데다 류승룡과 진선규가 재회한 작품인 만큼 류승룡 역시 "극한직업"으로 인해 관객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아마존 활명수"는 휴먼 드라마에 가까운 이야기 속에 소소한 재미가 첨가된 작품이라 성격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배세영 작가는 귀엽고 발칙한 발상을 하면서도 (캐릭터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작품을 많이 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작품을 선호해요. 선규는 다시 봐도 참 맑은 사람이고요. 존재만으로도 웃음을 주고 위안이 돼서 저희끼리는 '선규 테라피'라고 했어요, 하하."

류승룡과 진선규는 이하니, 이동휘, 공명 등 '극한직업' 배우들과 지금까지도 꾸준히 만나

류승룡, 영화 '아마존 활명수'서 양궁감독 역
'극한직업' 배세영 작가 시나리오... 진선규 출연
"진지하고 따뜻한 휴먼 드라마 소소한 재미"



고 있다. 3년 전부터는 한마음 한뜻으로 속편을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는 중이라고 한다.

"극한직업 2'는 저희끼리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인 거지요. 저는 항상 '스탠 바이'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이 길을 잘 열어주면 좋겠어요."

류승룡은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부녀 사이로 호흡한 아역배우 갈소원과도 매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섯 살일 때 만난 아이가 지금은 고3이 됐다"면서 "아들만 둘 있는데 소원이 딸 같더라" 웃었다.

류승룡은 한 작품에 출연한 후배 배우들의 영화나 연극 시사회에 참석하고 커피 차를 보내주는 등 묵묵히 응원을 건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김혜수 씨가 후배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다"며 "촬영 현장에서는 '불평불만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즐거운 기분을 유지한다'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한편 책임감을 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BTS 진 '아일 비 데어'

솔로앨범 선공개곡 발표...다음달 컴백

그룹방탄소년단(BTS) 진이 25일 솔로 앨범 '해피(Happy)'의 선공개곡 '아일 비 데어'(I'll Be There·사진)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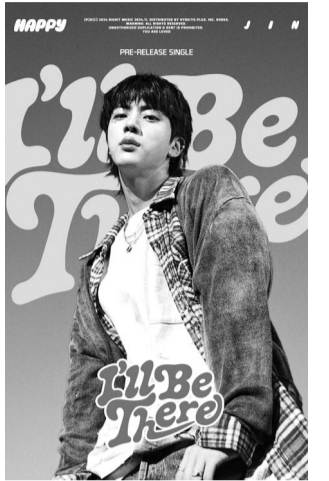
'아일 비 데어'는 지치고 혼자라고 느낄 때, 행복을 전하는 노래로 힘을 주고 싶다는 진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곡이다.

진은 이날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에 선공개곡 뮤직비디오 티저를 게시하고 신곡 공개를 알렸다.

영상에서 진은 록 가수를 연상시키는 차림으로 등장해 수록곡 가사 일부를 불렀다. 박진감 있는 드럼 연주는 멜로디와 어우러지며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진의 첫 솔로 앨범 '해피'는 다음 달 15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 타이틀곡 '러닝 와일드(Running Wild)'를 포함해 밴드 음악을 기반으로 든 6곡을 담았다.

진은 신보에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들려주고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다. /연합뉴스



영상을 통해 진은 록 가수를 연상시키는 차림으로 등장해 수록곡 가사 일부를 불렀다. 박진감 있는 드럼 연주는 멜로디와 어우러지며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진의 첫 솔로 앨범 '해피'는 다음 달 15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 타이틀곡 '러닝 와일드(Running Wild)'를 포함해 밴드 음악을 기반으로 든 6곡을 담았다.

진은 신보에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들려주고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다. /연합뉴스

우도환·이유미표 유쾌한 로코

'Mr. 플랑크톤' 11월 넷플릭스 공개

배우 우도환과 이유미가 주연하는 넷플릭스 새 시리즈가 11월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새 로맨틱코미디 시리즈 'Mr. 플랑크톤'을 내달 8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Mr. 플랑크톤'은 실수로 잘못 태어난 남자의 인생 마지막 여행길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강제 동행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우도환은 불손한 종자라며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해 친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해조류, 이유미는 종갓집 5대 독자 어흥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느닷없이 해조의 기구한 여행길에 함께하게 된 조재미를 연기한다. 혼례 당일 눈앞에서 사라진 신부를 쫓아 나선 어흥 역에는 오정세가 나선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조용 작가가 각본을,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의 흥중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홍 감독은 "(전개)가 유쾌하고 빠르게 소동극처럼 흘러가며,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시민참여·지역재난방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광주시의회,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통과

시민참여방송과 지역 재난방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강수훈(민주·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광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재난정보, 지역 밀착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광역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로컬 밀착형 미디어다. 재난재해 발생 시 실시간으로 지역 상황을 제공하며 지역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광주에는 광주시민방송, 고려FM 등이 있다.

강 의원은 "시민 참여방송 및 재난방송 등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광주를 알차게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야말로 지역을 '매력 있는 도시'로 변모시키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공동체라디오 및 방송활동가의 역할과 개념도 정의했다.

공동체라디오는 '광주 시민의 방송참여 보장'과 지역 내 유익한 정보제공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으로, 방송활동가는 '공동체라디오



광주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 공청회 장면. <광주FM 제공>

오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 제작자 또는 진흥자'로 규정했다.

유영주 광주시민방송 대표는 "지역 재난방송 및 시민 참여방송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공표되면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 양성', '방송콘텐츠 제작' 등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대연건설</h3> <p>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p>	<h3>(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h3>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p>	<h3>(주)대신수산물통</h3>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꽃게랑 약선반찬 전집</h3>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p>	<h3>금남로 사주 카페</h3>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p>	<h3>석당화랑</h3> <p>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면쟁이</h3> <p>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p>	<h3>(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h3>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p>
<h3>박당화랑</h3> <p>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p>	<h3>민생 경공매 연구소</h3> <p>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2층 경력 30년 대표 토목식각장, 재밌게 공부하며 함께 투자 가능 총 40시간 수강료 200만원 (민법/집행법/행정법/기초의 기초~실전 유체동산 특강 ☎ 010-7638-6918</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무크 광주세정점</h3> <p>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뻐있는 스타일의 가물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p>	<h3>법무사 황영수 사무소</h3> <p>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림청담빌딩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h3>도명 명리심리연구소</h3> <p>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송가네 반찬</h3>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h3>다흥치마 한정식 전문</h3>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p>	<h3>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h3>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p>